

『한민족어문학』 제82집 편집자의 말

제82집에 실린 논문은 총 14편으로 국어학 5편, 교양국어 2편, 고전문학 2편, 현대문학 5편이다. 이번 호에는 각 전공 영역이 다소 고르게 게재된 듯하다. 투고 된 좋은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게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호이다. 더하여 2019년부터는 다소 완성도는 낮지만 소외 영역의 논문과 창의적이고 문제적인 논문, 그리고 융복합적인 논문 등에 대해서는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이들 논문들에 한해서만큼은 보다 우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어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조경순의 ‘국어 감정 표현 구문에 대한 연구’, 홍석준의 ‘새침’의 사전 처리와 ‘새침을 떼다’의 형성, 이민주·강현아의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구종남의 ‘국어의 연결어미 독립절에 대하여’, 유방의 ‘표준국어대사전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고찰’ 로 모두 5편이 실렸다.

조경순의 ‘국어 감정 표현 구문에 대한 연구’는 감정 표현에 대한 구문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감정동사의 하위 유형인 본유적인 감동동사와 비유적 감동동사 구문의 통사·의미론적 특징을 밝혔다. 즉, 감정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에서 감정 표현 주체, 감정 발생 원인, 감정 상태 등이 일정한 통사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구문론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감정 표현의 언어적 형상화 과정이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유적 감동동사 구문에서는 언어적 감정 표현에서의 필수요소가 나타나고, 비유적 감동동사 구문은 본유적 감동동사 구문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홍석준의 “새침”의 사전 처리와 ‘새침을 떼다’의 형성’은 ‘새침하다’의 ‘새

침'이 명사가 아니라 어근임을 밝히고 국어사전에서의 처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새침을 떼다'는 '새침하다'와 '시침을 떼다'가 의미적으로 유사하고 '새침'과 '시침'이 형태적으로 비슷하여 혼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민주·강현아의 '상품평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는 상품평에 나타나는 '완화 표현'을 유형화하며 극성에 따라 사용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웹상에서 활발히 생산되는 상품평은 주관성을 속성으로 가지는 텍스트 장르이다. 따라서 상품평에 나타난 '완화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화자의 견해, 느낌, 판단 등의 감성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 단위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종남의 '국어의 연결어미 독립절(단편문)에 대하여'는 후행절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연결어미로 종결되는 언어 형식에 대해 그 형식의 통사적 범주는 무엇이며 이런 형식에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연결어미들은 '-은지라', '-을새', '-은즉', '-은바', '-거니와', '-을진대', '-되', '-며' 등 문어적 특성을 가진 것들로서 이들 연결어미는 비명시적인 의미를 가져 선행절과 후행절을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유방의 '표준국어대사전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고찰'은 『표준국어대사전』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일관성이 있는 등재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전의 차후 수정 단계에서나마 필자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양국어 게재논문은 최호영의 미디어와 연계된 비평적 글쓰기와 창의적인 역사의식 함양-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의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장소진의 '공감적 소통을 위한 발표의 수사적 전략'으로 2편이 실렸다. 최호영의 미디어와 연계된 비평적 글쓰기와 창의

적인 역사의식 함양-2018년 1학기 인천대학교의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는 대학 글쓰기 수업의 현장에서 실습한 비평 글쓰기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 교양 교육의 방향성을 타진하고자 했다. 수강생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붉은 돼지』(1992)를 시청하고 이에 관한 비평 글쓰기를 시행한 결과,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개개인의 해석에 따라 재탄생하는 역사를 다루고 있는 점은 대학생들의 역사의식이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장소진의 ‘공감적 소통을 위한 발표의 수사적 전략’은 발표에서의 공감적 소통을 위한 수사적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수사학의 설득 기술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주목하여, 이것들을 공감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수사적 전략을 도모하였다. 공감적 관점에서의 에토스는 화자가 탈권위적 자세로, 청중을 배려하는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로고스는 소통의 용이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발표의 구술적 상황을 고려한 친사회적 소통의 전략을 통해 공감적 소통을 모색해야 한다. 파토스는 화자가 청중의 감정을 임의로 자극하지 않고 청중의 자발적 감정 이입과 공명을 통해 공감에 이르는 소통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최상은의 ‘조선후기 여성의 두 가지 탄식 -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손정인의 ‘안민영 피란 시기 사설시조의 성격과 표현’으로 2편이 실렸다.

최상은의 ‘조선후기 여성의 두 가지 탄식 -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여성들의 본성적 욕망과 보편적 삶, 현실과 동경의 세계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오는 탄식의 양상과 그 의미를 구명한 글이다.

손정인의 ‘안민영 피란 시기 사설시조의 성격과 표현’은 『금옥총부』 소

재 사실시조 2편(177번, 178번)을 대상으로 먼저 창작 시기를 추정하였다. 이어서 작가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성격을 이해한 다음, 안민영이 청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내적 체험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노상래 ‘이효석의 만주기행문과 ‘이경원’의 사망년도에 대한 연구’와 김경민 ‘사회적 금기로서의 집단적 가해와 시인(是認)으로서의 문학’, 서영희 ‘오장환 시의 금기 인식과 위반 충동’, 임기현 ‘<장학보> 소재 소설 연구’, 류희식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초극’으로 모두 5편이 실렸다.

노상래 ‘이효석의 만주기행문과 ‘이경원’의 사망년도에 대한 연구’는 이경원의 사망년도가 1940년이 아니라 1941년임을, 그리고 여타 기행문들이 하얼빈을 애로와 향락의 표상을 읽어낼 때 이효석은 일제의 만주정책과는 어긋나는 시선으로 기행서사를 그려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경민 ‘사회적 금기로서의 집단적 가해와 시인(是認)으로서의 문학’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가해행위는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였다. 문학은 이러한 금기에 맞서 공식 기억이 배제하고 억압한 대상을 기억하고 재현하며 대안적인 기억을 담아내는 ‘대항기억’의 공간이다.

서영희 ‘오장환 시의 금기 인식과 위반 충동’은 오장환 시의 특성을 금기와 위반의 메커니즘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쓰고자 한 논문입니다.

임기현 ‘<장학보> 소재 소설 연구’는 최초로 소설 현상모집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한 『장학보』(1908)에 실린 작품들과 이 매체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 잡지가 우리 소설사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 살폈다.

류희식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금기와 초극’은 장용학의 소설이 어떻게 사회적 금기를 초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금기인 터부는 토tem과

짜을 이루어 우리의 신체를 사회체가 필요로 하는 부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강제 기제이기 때문이다.